1-14-2023 주일 설교 메시지
금주의 묵상: 시편 91:1-16
본문말씀: 다니엘 8:1-27
말씀제목: 선지자 다니엘을 통해 주신 대 환란 때 일어날 일

다니엘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알려주신 연수를 책들로 깨달았습니다.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칠십 년만에 끝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2,3 년만 지나면 바빌론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라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뻐서 펄쩍 뛰거나 감격하여 흥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는 그의 얼굴을 주 하나님께 향하여 두고 금식하며 기도와 간구로 구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뿌리며 주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백하며 말하기를

"오 주여 위대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 곧 주를 사랑하고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는 분이여, 우리는 죄를 지었고 죄악을 행하였으며 사악하게 행하였고 반역하였으며 주의 법규들과 주의 명령들을 떠나기까지 히였고 또 우리는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그 땅의 모든 백성에게 말씀하신 것에 경청하지 않았나이다. 오 주여 의는 주께 돌아가고 얼굴의 수치는 오늘과 같이 우리에게 돌아오나니 즉 유다 사람들에게와 예루살렘의 거민들에게와 가까이 있거나 멀리 있는 이스라엘 모두에게 즉 주를 거슬러 범죄한 그들의 허물로 인하여 주께서 쫓아내신 모든 나라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니이다. 주의 얼굴의 수치는 우리들과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통치자들과 우리의 조상들에게 돌아오나니 이는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주 우리 하나님께는 자비와 용서가 있으니 우리는 주를 거역하였으며 또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였고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 앞에 세우신 주의 법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므로 그 저주의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가 우리에게 부어진 것은 우리가 주를 거슬러 죄를 지었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는 우리에게 큰 재앙을 가져오심으로 우리와 우리를 판단하였던 우리의 재판관들에게 말씀하신 주의 말씀을 확정하셨으니 이는 곧 하늘 아래에서 예루살렘에 행해졌던 것과 같은 일이 행해지지 않았음이니이다.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대로 이 모든 재앙이 우리에게 닥쳤으니 우리는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거나 주의 진리를 깨닫도록 즉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기도를 하지 않았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는 그 재앙을 지켜보셨고 그것을 우리에게로 가져오셨으니 이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 의로우시니 우리는 주의 음성에 복종하지 않았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백성을 능하신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날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오 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가 죄를 지었고 우리가 악하게 행하였나이다."(9:4-15 절)

선지자 다니엘은 그가 본 환상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는 기절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집니다. 앞으로 될 일을 깨달으면 놀랍니다. 다니엘은 깨달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깜깜하게 몰랐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 바벨론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 엄청난 수난과 환란을 겪어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앞으로 될 일들을 도무지 모르고 자기 살기에 바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닌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마침내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들으소서, 오 주여, 경청하시고 행하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여, 주님 자신을 위하여 지연시키지 마옵소서. 이는 주의 도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불려짐이니이다."(19 절)

마침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을 보내셔서 그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브리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도성에 칠십 주(490 년)가 정해졌으며 앞으로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시키며 죄악에 화해를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지극히 거룩한 이, 즉 그들의 메시야에게 기름을 부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칠십 주에 대하여, 예루살렘을 복원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오는 때부터 메시야 통치자까지 칠 주(49 년)와 육십이 주(434 년)가 될 것이며 칠 주와 육십이 주 후(483 년)에는 메시야가 끊어질 것(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며 그가 죽으심은 자신을 위함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하여 죽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또한 그후에 어떤 통치자(적그리스도)가 도성과 성소를 또 한 번 피괴할 것인 바 전쟁의 끝에 황폐함이 정해졌다고 예언했습니다. 그 통치자에 대하여, "그가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주(칠 년) 동안 언약을 확정하고 그 주의 중간(삼 년 반)에 그가 희생제와 예물을 금지시킬 것이요, 그는 가증함을 확신시킴으로

황폐케 하리니 진멸할 때까지 할 것이며, 정해진 것이 황폐케 한 자에게 쏟아지리라."고 예언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을 통하여 멸망의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리니, (읽는 자는 깨달으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하라."(마 24:15-16)

사도 바울은 "그"에 대하여 증거할 때에 그는 죄의 사람이며 멸망의 아들이라고 증거했습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며, 또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받는 대상 위에 자신을 높여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하나님처럼 보여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느니라."(살후 2:4)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들은 옛날 바빌론보다 더 큰 바빌론인 로마 교회 속에 포로로 잡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종들과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일고 있는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라 하는 하나님의 교회들은 1 세기 이후부터 큰 바빌론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로마 콘스탄틴 황제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개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더 이상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지 않는다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고 기독교와 바빌론 종교를 혼합시켜 그때부터 사실상 사도바울의 신앙을 따르던 순수한 기독교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로마 황제는 12 월 25 일을 크리스마스날로 정했으며,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이스터(Easter), 즉 바벨론 신 이스타르를 섬기는 날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부터 해방되었던 것처럼 순수한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들(Bible Believers)은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나타나시는 휴거의 날에 마침내 오랜 포로생활로부터 해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늘로 옮겨지게 될 때에 마침내 죄의 사람이며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세상 사람들과 칠년 동안 언약을 맺게 될 것입니다.

유엔을 통해 2023 년에 선포된 SDG 와 COP 28 을 통해 확정된 7 년 언약을 2030 년까지 한 이레(칠년) 후에 평화와 안전(Peace and Security)한 세상을 오게한다고 했고 올해 2024 년부터 이미 시작되었으니 하나님의 교회가 하늘로 옮겨지는 휴거는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휴거를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선지자 다니엘의 심정으로 철저한 회개와 큰 바빌론 WCC, WEA, NCCK 에 속한 교회들과 하나님의 종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미국 장로교회의 경우 교회를 담임하려는 목사들에게 세 가지 조건에 동의 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동성애를 인정해라, 둘째는, 성경은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고 사람이 쓴 것이다. 셋째는, WCC 에 가입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바빌론으로부터 칠십 년 만에 해방될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그는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의 멀씀들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들의 죄와 교회들의 죄를 놓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놓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통하여 이 시대도 그 시대와 똑같은 시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지금의 교회나, 그때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지금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똑같은 것이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고난을 보면서도 앞으로 임할 대환란을 보지 못하고 휴거를 보지 못하는 이 마지막 때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부분의 교단들이 큰 바벨론 WCC 에 들어가 있으면서도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는 이런 때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죄들을 자백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죄를 자백하고 또 교회들의 죄를 자백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